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6.15

미 증시, 국채 금리 급등 속 변동성 확대되며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더해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둔화되자 상승 출발. 특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 그렇지만,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FOMC를 앞두고 연준의 7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지속 부각되며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더불어 론 와든 상원의원의 에너지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 언급도 장 후반 변동성 확대 요인 (다우 -0.50%, 나스닥 +0.18%, S&P500 -0.38%, 러셀2000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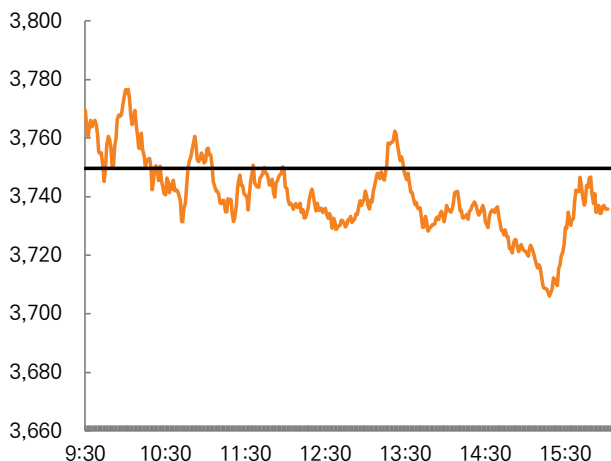
특이 종목

- 오라클(+10.41%)은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견고한 실적에 힘입어 급등. 페덱스(+14.41%)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합의하며 배당금을 인상하고 이사를 추가하자 급등. 포드(+3.30%), GM(+2.85%) 등 자동차 업종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대 요청 소식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테슬라(+2.39%)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16.70%)는 테슬라의 모델 Y와 경쟁하는 새로운 전기 SUV를 발표하자 급등. 알리바바(+6.81%), 등 중국 기업들은 미 증시 상장 폐지 우려 완화, 규제 완화 기대 심리가 지속되자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16%, MSCI 신흥 지수 ETF는 1.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9.9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3%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에서 FOMC를 앞두고 최근 하락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장중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정책 기조 및 실적 개선 기대 속 급등한 점은 긍정적. 이는 오늘 홍콩 증시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92.97	-0.46	상해종합	3,288.91	+1.02
KOSDAQ	823.58	-0.63	홍콩항셍	21,067.99	+0.00
DOW	30,364.83	-0.50	베트남	1,230.31	+0.27
NASDAQ	10,828.35	+0.18	유로스톡스 50	3,475.18	-0.78
S&P 500	3,735.48	-0.38	영국	7,187.46	-0.25
캐나다	19,548.51	-0.98	독일	13,304.39	-0.91
일본	26,629.86	-1.32	프랑스	5,949.84	-1.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높은 물가와 국채 금리 ②세금 정책 변화 우려

미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를 상회한 전월 대비 0.8% 상승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를 하회한 10.8% 상승에 그침.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도 9.7% 상승해 지난달 발표를 모두 하회. 생산자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5.0% 특히 가솔린 가격이 8.4% 급등하며 생산자 물가지수를 견인. 더불어 최종 수요 서비스 부문이 지난달 전달 대비 0.2% 감소와 달리 0.4% 상승한 점도 특징. 대체로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이지는 했으나 높은 수준의 물가 장기화 우려는 지속적으로 자극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물가지표들이 ‘높은 물가의 장기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연준의 선택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CME FedWatch에서는 6월 FOMC에서 75bp 금리인상 확률이 전일 34.6%에서 97%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전망이 지속되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한 때 3.50% 2년물 국채 금리도 3.45%를 기록.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의 흐름과 달리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견고한 흐름. 이는 금융시장이 연준의 75bp 금리인상을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어 한국 시각 내일 새벽 발표되는 FOMC 결과는 주식시장에 중립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편, 장 후반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이다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인 요인은 세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 미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인 론 와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석유회사의 이익에 대해 21%의 추가적인 세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변화를 보임.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엑슨모빌(+0.26%)의 이익에 대해 과도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목

물론 세금 정책의 승인을 위해 민주당 50명 전원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연말 중간선거에서 하원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결국 중간선거와 인플레이션 등을 통한 미국의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 관련 부분은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해야 할 듯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Vs.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진

오라클(+10.41%)은 강력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견고한 실적에 힘입어 급등. 이에 시놉시스(+1.69%) 등이 동반 상승. 페덱스(+14.41%)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합의하며 배당금을 인상하고 이사를 추가하자 급등. 포드(+3.30%), GM(+2.85%) 등 자동차 업종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대 요청 소식과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테슬라(+2.39%)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16.70%)는 테슬라의 모델 Y와 경쟁하는 새로운 전기 SUV를 발표하자 급등. 샤오펑(+7.52%), 리오토(+10.91%)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동반 상승. 알리바바(+6.81%), JD닷컴(+6.08%), 핀두오두오(+11.96%) 등 중국 기업들은 미 증시 상장 폐지 우려 완화에 이어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 심리가 지속되자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급등

JP모건(-1.66%), BOA(-1.75%) 등 금융주는 금리 급등 불구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자 향후 마진 둔화 우려로 하락. 부킹닷컴(-1.41%), 익스피디아(-4.07%), 카니발(-3.94%), 델타항공(-2.58%) 등 여행, 크루즈, 항공 업종은 5월 항공사 예약에 전월 대비 2.3% 감소해 2개월 연속 둔화되었다는 소식에 하락. 듀크에너지(-2.41%) 등 유틸리티 업종과 크라운 캐슬(-4.04%) 등 리츠 업종은 금리 급등 여파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5	대형 가치주 ETF (IVE)	-0.73
에너지섹터 ETF (OIH)	-2.10	중형 가치주 ETF (IWS)	-0.46
소매업체 ETF (XLY)	-0.08	소형 가치주 ETF (IWN)	-0.41
온라인소매 ETF (EBIZ)	+1.19	대형 성장주 ETF (VUG)	+0.05
금융섹터 ETF (XLF)	-0.86	중형 성장주 ETF (IWP)	-0.13
기술섹터 ETF (XLK)	+0.63	소형 성장주 ETF (IWO)	-0.3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53	배당주 ETF (DVY)	-0.86
클라우드 ETF (CLOU)	-0.1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23
미국 리츠 ETF (VNQ)	-0.76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62
주택건설업체 ETF (XHB)	-0.79	미국 국채 ETF (IEF)	-0.80
바이오섹터 ETF (IBB)	+0.25	하이일드 ETF (JNK)	+0.80
헬스케어 ETF (XLV)	-0.95	물가연동채 ETF (TIP)	-1.37
곡물 ETF (DBA)	-0.2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2
반도체 ETF (SMH)	+0.73	모멘텀 ETF (MTUM)	-0.4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197.85	+0.62	-11.13	-7.47
에너지	636.74	+0.07	-8.70	+4.00
경기소비재	1,072.55	-0.25	-11.24	-9.66
산업재	740.45	-0.25	-9.66	-5.83
통신	183.13	-0.29	-9.99	-8.35
소재	486.95	-0.84	-11.74	-5.96
금융	517.85	-0.94	-11.33	-6.91
부동산	242.34	-1.01	-12.29	-10.09
헬스케어	1,400.14	-1.07	-8.49	-6.50
필수소비재	718.89	-1.29	-6.41	-10.36
유틸리티	334.65	-2.58	-11.84	-7.4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16%, MSCI 신흥 지수 ETF는 1.4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89.97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3%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속 추가적인 급락을 보이자 하락 출발. 특히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도로 인한 수급적인 불안도 하락 요인. 다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자 낙폭 축소. 중국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일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KOSPI는 0.46%, KOSDAQ은 0.63%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FOMC를 앞두고 최근 하락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장중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한편, CME FedWatch를 통해 연준의 75bp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미국 기술주가 견고함을 보인 점은 관련 이슈가 이미 주식시장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국 증시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물 소화 과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 특히 미 증시 장 후반 하락폭 확대는 세금 정책 변화 등도 영향을 줘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정책 기조 및 실적 개선 기대 속 급등한 점은 긍정적. 이는 오늘 홍콩 증시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높은 수준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0.4%)를 상회한 전월 대비 0.8% 상승했으나 예상과 부합.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yoy +11.5%)을 하회한 10.8% 상승에 그침.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해 지난달 발표(mom +1.1%)를 하회. 전년 대비로도 9.7% 상승해 지난달 발표(yoy +10.0%)를 하회

미국 5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93.2)를 소폭 하회한 93.1을 기록했으나 예상(93.0) 보다 소폭 상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채금리, FOMC 앞두고 75bp 인상 기대로 급등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유전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공급측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 중 상승 하기도 했음. 한편, OPEC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340만 배럴 증가할거란 전망을 유지한 점도 긍정적.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과 미 상원에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전환하며 마감

달러화는 FOMC를 앞둔 가운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한편, 유로화는 최근 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한 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FOMC를 앞두고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하자 약세로 전환. 파운드화는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일 발표된 2개월 연속 GDP 둔화 등과 함께 영국 경기 위축 우려로 달러 대비 하락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의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후 상승세를 보였으며, CME FedWatch를 통해 6월 FOMC에서 75bp 인상 확률이 97%를 기록하는 등 확실시 되자 급등. 10년물의 경우 3.46%를 기록하며 11년내 최고치를 보인 가운데 2년물 또한 3.4%를 상회

금은 국채 금리 급등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곡물은 금융시장 하락 압력과 FOMC를 앞두고 매물 출회되며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8%, 철근은 1.6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8.93	-2.21	-0.96	Dollar Index	105.466	+0.37	+3.08
브렌트유	121.17	-1.45	-0.06	EUR/USD	1.0415	+0.06	-2.69
천연가스	7.19	-15.31	-21.54	USD/JPY	135.27	+0.63	+2.02
금	1,813.50	-1.29	-2.37	GBP/USD	1.1989	-1.20	-4.79
은	20.95	-1.48	-5.58	USD/CHF	1.0017	+0.41	+2.96
알루미늄	2,570.00	-2.21	-7.50	AUD/USD	0.6869	-0.78	-5.02
전기동	9,230.50	-0.68	-4.83	USD/CAD	1.2957	+0.45	+3.39
아연	3,596.50	-0.47	-5.28	USD/RUB	58.3654	+1.55	-6.57
옥수수	721.25	-0.21	+0.84	USD/BRL	5.1295	+0.26	+5.31
밀	1,065.25	-1.93	-1.80	USD/CNH	6.7564	-0.39	+1.27
대두	1,525.25	-0.62	-1.65	USD/KRW	1,286.35	+0.19	+2.28
커피	226.90	+1.54	-2.35	USD/KRW NDF1M	1,289.97	-0.07	+2.8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79	+11.93	+50.55	스페인	3.115	+12.10	+70.60
한국	3.685	+0.70	+14.30	포르투갈	3.110	+11.20	+66.20
일본	0.249	-0.80	+0.10	그리스	4.708	+19.60	+89.20
독일	1.758	+12.60	+46.50	이탈리아	4.024	+14.90	+87.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